

수상안전사고 예방 · 대처요령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매년 여름철 계곡, 강, 바다, 유원시설 등을 찾아 학생들이 수영, 수상레저 활동 등에 참여하고 있고, 올해는 이른 무더위로 수상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학생들의 수상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처요령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학생들이 안전하게 수상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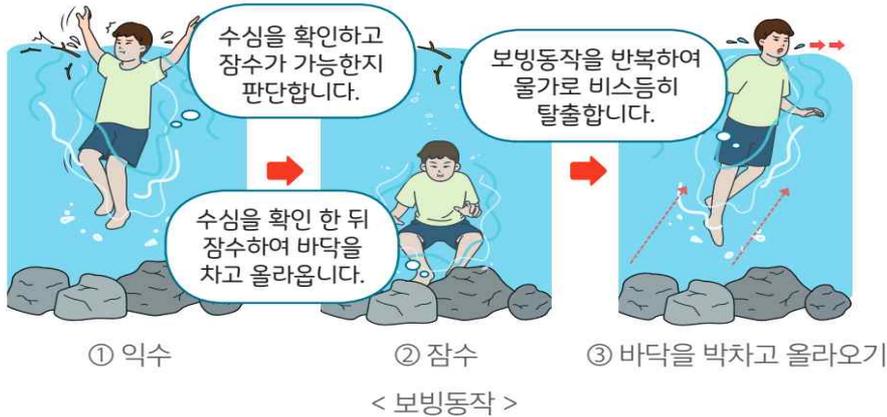
1. 공통요령

- 물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준비운동! 구명조끼는 필수
- 계곡이나 하천에 갈 경우 생활안전지도를 활용하여 안전한 물놀이 장소 미리 확인
* www.safemap.go.kr 또는 '생활안전지도' 앱 통해 확인
- 신고시 위치좌표가 바로 전송되는 해로드 앱을 설치
-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다음과 같이 행동
 - ① 주위에 소리쳐 알리기
 - ② 즉시 119에 신고
 - ③ 주변의 구조물품을 이용하거나, 없다면 차분하게 익수자의 상태를 주시
 - ④구조요원에게 정보 제공
- 구조 필요시에는 함부로 물에 뛰어들지 말고 가급적 주변 물건이나 물에 뜨는 부유물을 이용해 구조 시도
- 평소 '생존수영'을 꼭 익혀두기



2. 계곡

- 미리 수온을 확인하고, 다이빙은 절대 하지 않기
- 일기예보를 미리 확인하여 비가 올 경우 들어가지 않기
- 미끄러짐, 머리를 다치는 것을 유의
- 계곡에 빠졌을 때, 흐르는 물의 흐름대로 떠내려가며 가까운 물가를 향해 대각선 방향으로 이동하여 탈출
- 물길이 세지 않은 깊은 물웅덩이와 같은 곳에 빠졌을 때
 - 당황하지 않고 누워뜨기 자세를 취해 물에 가라앉지 않도록 함
 - 그대로 잠수하여 바닥을 차고(보빙) 수면위로 떠올라 호흡 유지, 반복하여 얇은 쪽으로 탈출



행정안전부-계곡-해수욕장 등에서의 안전사고 대처요령

3. 바다·해수욕장

- 바다에 들어가기 전에 너울(사람을 끌고 가는 파도), 이안류(거꾸로 치는 파도) 등 물놀이 시 위험할 수 있는 이상파도가 있는지 확인
- 바다에 빠졌다면
 - 구조대가 올 때까지 배영자세를 유지하며, 파도에 몸을 맡겨 체력을 아끼기
 - 큰 파도가 덮칠 때는 깊이 잠수할수록 안전(파도에 휩쓸릴 경우 암초에 부딪혀 부상 가능)
- 이안류에 휩쓸려 먼 바다로 떠내려 갈 때는 표류하여 이안류의 흐름이 없는 곳에서 대각선이나 직각방향으로 해안쪽으로 헤엄쳐 나오는 것이 좋음
- 해파리에 쏘였을 경우



< 해파리에 쏘인 경우 대처요령 >

행정안전부-계곡-해수욕장 등에서의 안전사고 대처요령

2024. 6. 17.

산 서 중 고 등 학 교 장